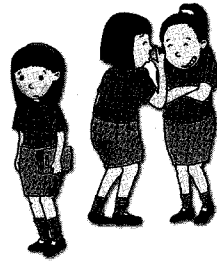


# 왕따, 은따, 집단

편집부



**왕**따란 “왕 따돌림”의 준말로 두 명이상의 폭력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며 집단으로 따돌리는 학생을 말한다.

## 왕따의 발생원인

청소년기는 선택적 교우관계를 하며, 선택의 기준은 유사성이다. 유사성에서 벗어난 친구에 대한 거부반응이 따돌림을 만든다.



집단동조 압력이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동조 압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따돌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자기불안을 위장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 왕따 행동의 유형

“상대 안하기”, “모함하기”, “은근히 욕하기”, “시비걸기”, “도시락 같이 안떡기”, “학용품이나 숙제 감추기”, “장난을 빙자해 때리거나 가혹행위하기” 등과 같은 폭언 및 폭행을 가해 집단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 왕따와 관련된 은어

‘따’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부르는 말. ‘따돌이, 따순이’ 따돌림을 당하는 남학생, 여학생. ‘은따’ 학급이나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전따’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개따’ 개인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집따’ 집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뺨까’ 집단으로 따돌리기 위해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행동

## ‘왕따’의 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98년도 상반기 학교폭력에 관한 전화상담 요청자 342명 중 집단 따돌림에 관한 상담은 148명(43.3%)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왕따 피해자의 성별

왕따 피해자 148명 중 여학생이 57.8%(81명), 남학생이 45.2%(67명)로 왕따 현상은 남·여학생 모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 ● 왕따 피해자의 신분

왕따 피해자 중 중학생이 59.5%(88명), 초등학교생이 20.3%(30명), 고등학생이 17.5%(26명)로 중학생들의 왕따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 ● 왕따 피해 후의 상태

왕따를 당한 후 피해자들 중 40%(59명)가 불안을 호소하였으며, 등교거부 및 전학요구 18.9%(28명), 정신과 치료 2.7%(4명), 자살시도 0.6%(1명)순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왕따 피해 후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공: “왕따 극복하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